



나라사랑 역사의 길

# 제9편\_전쟁 그리고 비극의 시작 미아리에서 혜화동까지

'나라사랑 역사의 길'은 독립기념관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국내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기록물이다. 이 길은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사적지를 중심으로 현충시설, 전근대 역사유적, 경관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역사의 길로, 우리나라 989개의 독립운동시설과 1,322개의 국가수호시설 등 총 2,311개의 현충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탐방 코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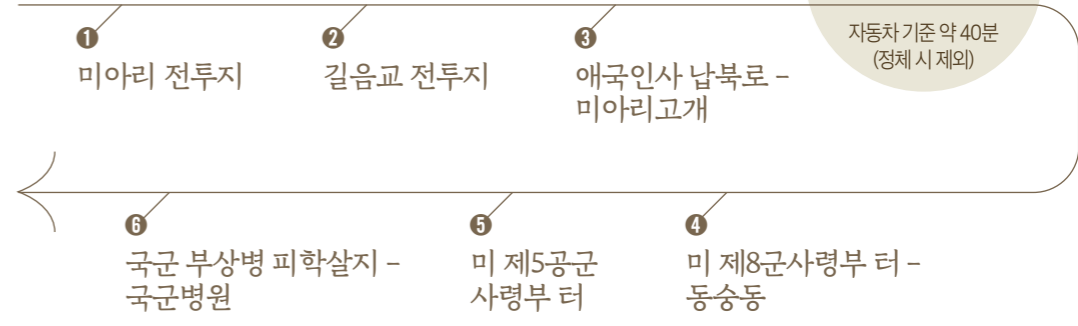
도로교통 저널에서는 독립운동과 6·25전쟁의 국가수호 사적지를 알리고, '나라사랑 역사의 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획 연재를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6·25전쟁 발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되는 과정을 따라가며 이 과정에서 자행된 북한군의 만행과 전쟁의 비극을 되새긴다.

## 📍 탐방로 안내

미아리에서 혜화동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전과 이별의 눈물, 그리고 반격의 의지가 켜켜이 쌓인 역사의 층이다. 매일 무심코 지나가는 길이지만, 이번 호를 통해 독자들이 이 도로 위에 새겨진 625전쟁의 흔적을 한 번쯤 되새겨 보길 바란다.

지역  
현재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일대부터  
서울대학교병원까지  
자동차기준 약 40분  
(정체시 제외)

## 📍 탐방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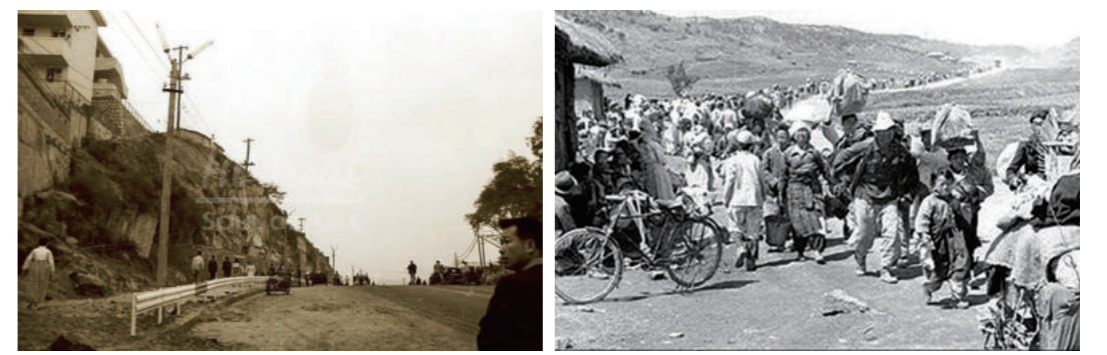


## 📍 함께 갈 만한 곳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비 쉼터, 대학로(마로니에 공원),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창경궁

## 📌 코스 개요

1950년 6월 25일, 평화롭던 일요일 아침을 깨운 포성은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의 턱밑까지 도달했다. 당시 북한군의 전차 부대를 막아내기 위해 우리 군이 선택한 최후의 저항선은 바로 서울의 북부 관문인 미아리였다. 지금은 출퇴근길 정체로 익숙한 이 도로들이 76년 전인 1950년에는 나라의 운명을 건 처절한 사투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핸들을 잡는다.





코스 ①

### 미아리 전투지 : 서울 사수의 마지막 보루

성북구 돈암동과 길음동을 잇는 미아리 고개는 의정부 방향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전차 통로였다. 6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국군 제7사단은 이곳에 가파른 지형을 이용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제대로 된 대전차 화기도 없던 시절, 장병들은 맨몸으로 적의 T-34 전차에 맞섰다. 지금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이 완만한 경사로 위에는 수도 서울을 지키려 했던 젊은 영혼들의 외침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



코스 ②

### 길음교 전투지 : 무너진 다리, 통한의 후퇴

미아리 고개 북쪽 입구인 길음교 일대는 시가전의 정점이었다. 우리 군은 길음교를 중심으로 적의 진격을 늦추려 했으나, 28일 새벽 전차를 앞세운 적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방어선이 무너졌다. 당시 이 도로는 후퇴하는 국군과 피란민, 그리고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이 뒤엉킨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오늘날 매끈하게 닦인 길음교 위를 지나며, 도로가 단순히 물자의 이동로가 아닌 역사의 향방을 가르는 생명선임을 실감한다.



코스 ③

### 애국인사 납북로 미아리고개 : 단장의 슬픔이 서린 길

방어선이 뚫린 후 미아리 고개는 비극의 통로로 변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 가사처럼, 수많은 애국지사와 정치인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 이 고개를 넘어 북으로 끌려갔다. 당시 도로변에서 서서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을 이들의 아픔이 고개 정상에 예술극장과 구름다리 너머로 질게 깔려 있다. 길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통로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이별의 길이었다.



코스 ④, ⑤

### 미 제8군·제5공군사령부 터 동송동 : 반격의 심장부

혜화동 사거리를 지나 대학로(동송동)로 접어들면 당시 서울대 본관(현 예술가의 집) 건물이 나타난다. 전쟁 초기 이곳은 미 제8군사령부와 제5공군사령부가 주둔하며 전선을 지휘했던 곳이다. 9·28 수복 이후에는 반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전쟁의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 작전을 짜고 항공 지원을 요청하던 지휘부의 숨 가쁜 움직임이 느껴진다.



코스 ⑥

### 국군 부상병 피학살지 국군병원 : 잊지 말아야 할 최후의 비극

이번 드라이브 코스의 마지막 목적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이다. 서울 함락 당시, 이곳에 남아있던 국군 부상병들과 의료진은 인민군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당했다. 병원 본관 뒤편에 세워진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 앞에 서면 숙연해진다. 치열했던 도로 위의 전투가 끝난 뒤 도착한 이곳에서 마주한 것은 전쟁의 가장 잔인한 민낯이었다. 🇰🇷

### 탐방을 마치며

평소 무심코 지나던 아스팔트 길 위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전차에 맞섰던 장병들의 투혼과 이별의 눈물이 켜켜이 쌓여 있다. 미아리에서 동송동에 이르는 이 탐방로는 단순한 드라이브 코스가 아닌,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흔과 반격의 의지가 공존하는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이 길 위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영웅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송고한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자.

\* 자료와 사진을 제공해주신 독립기념관, 서울특별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